

## 컬링, 누구나 할 수 있어요! 겨울 스포츠 시티 삿포로

여러분 안녕하세요! 작년 4 월, 삿포로시 국제교류원으로 착임한 손민지입니다.

저는 한국 내에서도 겨울에는 눈이 별로 쌓이지 않으며, 여름에는 가장 더운 도시로 유명한 대구에서 자랐으므로, 눈이 많이 쌓이고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삿포로를 좋아합니다!

이러한 제가 가장 최근 알게 된 겨울 스포츠는 '컬링'입니다. 2014 년 소치 올림픽 때 TV 로 처음 본 컬링은 스톤을 던지고, 선수들이 그 스톤 앞에서 쓱쓱쓱 바닥을 닦는 모습이 마치 빙상의 당구, 또는 볼링처럼 보였습니다.

컬링 시합을 본 후, 꼭 한 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나, 좀처럼 기회가 없던 중에 올해 6 월, 홋카이도은행 컬링 스타디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컬링 체험을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홋카이도은행 컬링 스타디움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국제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개최, 더 나아가 체험형의 관광 등에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2012 년 9 월 15 일에 오픈한 스타디움입니다.



제가 생각하고 있던 컬링이라는 스포츠는 선수들이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, 선수 1 명이 스톤을 가볍게 던진 후, 몇 명의 선수가 그 스톤 앞에서 쓱쓱쓱 바닥을 닦으면, 스톤이 자연스럽게 원의 중앙에 근접하게 멈추는 언뜻 생각하면 심플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스포츠였습니다. 그러나 직접 체험해보니 있는 힘껏 스톤을 던져도 레인의 반도 가지 못하고 멈추어버리거나, TV 에서 본 것처럼 스위핑을 흉내 내기는 커녕 빙상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.



다음날 팔과 다리에 근육통이 있었지만, TV 에서만 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으며, 다음에는 제대로 4 명이서 팀을 만들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홋카이도은행 컬링 스타디움은 2 년 후,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이기도

합니다.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겨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 그리고 경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서 창설되었습니다. 2017 년에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제 8 회 대회에서는 참가국 등이 약 30 개국, 지역 및 참가 인원수는 약 1500 명으로 과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

< 홋카이도은행 컬링 스타디움 >

<http://www.shsf.jp/curling/>

<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 >

<http://sapporo2017.org/>

◆ 문의처

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

〒060-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

TEL : 011-211-2032、FAX : 011-218-5168

E-mail:kokusai@city.sapporo.jp